

나는 사람을 담아 삶을 이야기하는 사진이 좋다



● LOVE 사랑

왜 그때 어머니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놓지 못하게 하셨을까. 멀지 않은 어느 날 사람은 떠나고 사진만 남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 그 시절의 내 나이만큼을 더하고도 몇 년을 더 보아야 하는 시간을 지나온 지금, 옛날 사랑은 사람도 사진도 없이 가슴 속에 한 가닥 바람으로 남아 추억으로 펄럭인다. 그러나 여기 사진 속 사랑은 현재진행형이다. 꽃잎 하나 입에 물고 어깨 기대서 있는 연인에게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머리칼이 다 빠져버린 어린 아이에게 입맞추는 간호사에게도, 누워 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점자책을 읽어주는 눈 먼 할머니에게도 사랑은 여전히 지금 여기서 진행중이다.



《LOVE》의 사진들에는 사람 한 평생의 사랑이 다 들어 있다. 임신으로 터질 것 같은 엄마의 배, 눈물과 웃음으로 출산의 순간을 맞은 엄마와 아빠와 아기, 아빠 배 위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기, 콩닥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소년과 소녀의 만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끓어 넘치는 젊은 사랑의 풍경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다시 부모가 되고, 노년의 사랑을 나눈다. 운전하는 남편의 등 뒤에 놓인 주름진 손, 마주 앉거나 끌어안은 두 사람의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침대 위의 노부부. 사진 한 장에 그들의 인생과 서로 맺고 있는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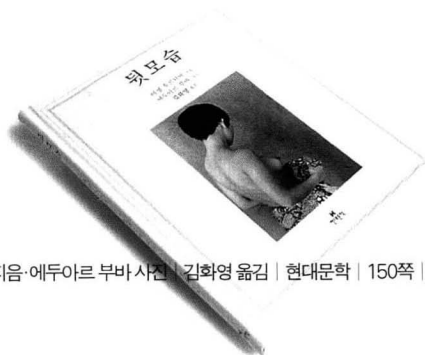
한 사진작가는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친구와 그를 간호하는 아내의 마지막 몇 주를 사진에 담아 놓았다.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수많은 말을 전하는' 그 사진 속에서 생명은 쓸쓸하지만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눈빛으로 저물어간다. 태어난 지 나흘된 조산아가 엄마를 처음 만나는 날, 아기는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꼭 붙잡고 있다. 엄마의 새끼손가락에 매달린 아기의 고통과 희망이 너무도 간절해 작은 생명은 엄청나게 무겁다. 그것은 사랑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다.

● FAMILY 가족

첫 아이는 무한한 기쁨이면서 고통과 슬픔으로 나를 찾아왔다. 의사는 아이를 잃지 않으려면 가만 누워 있으라고 충고했고, 아이를 기다리며 방에 누워서 보내는 시간은 참으로 느리게 흘러갔다. 창 밖으로 해가 뜨고 졌으며, 내가 가까이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주시던 친정 어머니와 신혼의 남편이 전부였다. 사람이 그리워서 울었고, 바깥 세상이 보고 싶어 또 울었다. 아이를 낳은 그 밤, 어둠 속에서 비로소 실감이 났



《LOVE》《FAMILY》《FRIENDSHIP》 | 현중 율김 | 이레 | 176쪽 | 값 15,000원



《뒷모습》 | 미셀 투르니에 지음·에두아르 부바 사진 | 김화영 율김 | 현대문학 | 150쪽 | 값 15,000원



다. 아, 이제 내 몸 속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아이가 있구나...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짐이며 울타리가 될 것을 그때 나는 이미 알았던 것일까, 아니면 미처 몰랐던 것일까.

탯줄을 달고 있는 아기의 탄생 순간. 자글자글한 주름이 덮인 까만 얼굴이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닮은 노부부. 이빨이 몽땅 빠진 할아버지의 기분 좋은 웃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주 웃고 있는 아기 아빠와 안겨 있는 아기. 《FAMILY》는 이렇게 시작한다. 사진 속에서 가족은 짐보다는 울타리 쪽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끝없이 흘러간다. 그 사이로, 놀러 나가기 위해 여동생의 의족을 채워주는 아홉 살짜리 오빠와 자신의 몸의 반쪽밖에 안 되는 쌍둥이 형제를 안고 가는 청년이 보인다. 그들에게 가족의 불편함과 곁핍은 반드시 채워야 할 무엇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생활이며 삶이다.

이 책에는 유난히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이 있는 사진이 많다. 아이들 옆에서 그들의 주름은 더욱 선명하지만, 나란히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마주보는 사랑의 눈빛은 달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행복의 또 다른 쪽에는 언제나 고통이 존재하는 법.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 고통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 짐이 울타리 안에 머물기 위해 기꺼이 져야 할 짐이라면 우리는 늘 빈 손 내밀어 받아들인다. 짐으로만, 울타리로만 끝나는 가족은 그 어디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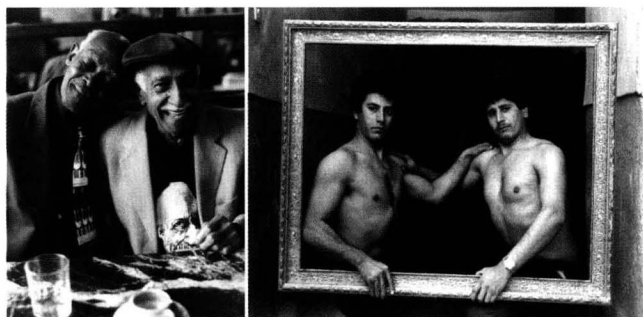
없다. 가족이라는 짐과 울타리는 서로 반대쪽에 얼굴을 두고 있지만 행복과 불행처럼 등이 꼭 붙어 있다.

● FRIENDSHIP 우정

뭐가 그리도 재미있을까. 까르르 터지는 웃음은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툭툭 건드리는 손에는 따뜻한 장난기가 묻어난다. 소곤소곤 귓가에 쏟아지는 이야기는 끝이 없고, 조금만 멀어져도 서운해 눈물이 난다.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M.I.L.K. 사진집 중에서 《FRIENDSHIP》에 가장 웃음이 많다. 낡은 타이어만 있어도 신이 나는 아이들은 마분지 상자도 풀발 썰매를 타며 하늘로 날아오른다. 아이들이 서로 바꿔 먹는 막대사탕도, 할머니들이 나란히 앉아 같이 피우는 담배 한 대도 그 맛은 세상 최고이다. 친구랑 함께 있으니까. 까만 피부의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백인 아이가 신기해 눈을 떼지 못하지만 나와 다르다고 등돌리는 일은 없다. 웃음을 터뜨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사진에 이르면 아무 이유 없이 따라 웃는다. 그래서 웃음과 희망은 전염된다고 했던가.

그러나 웃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눈물 철철 흐르는 고통의 순간에도 옆에는 어김없이 친구들이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은 할머니와 그 친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할





이 글을 쓴 유경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시청각교육과를 졸업했으며 7년간 기독교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노인 방송을 통해 노년의 삶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노인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분석>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복지과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어르신사랑연구모임'을 운영하며 노인대학과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강사로 활동중이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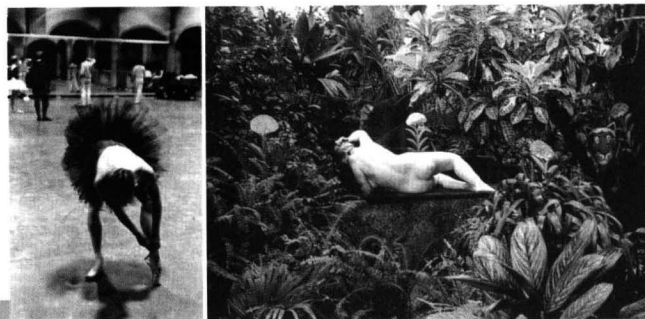
여성신문에 <유경의 녹색 노년>을 연재하고 있으며, 같은 제목으로 SBS 라디오 '마음은 언제나 청춘', 마산 MBC-FM '가요음점실'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 (서해문집, 2003)가 있다.

머니의 사진을 펼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보잘것없다. 오히려 삶이 보여 주고 있는 분명한 마지막 길, 그 길의 엄숙함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서로 무엇을 나누고 있을까. 지나온 삶일까, 아니면 새로 맞이할 또 하나의 삶인 죽음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바지가 흘러내려 엉덩이가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어깨동무한 친구들과 발걸음을 맞추느라 정신 없는 꼬마가 바로 내 모습인 것처럼, 주름 가득한 얼굴에 호물호물한 입으로 웃는 것 또한 내 모습이다. 꼬마 옆에도 할머니 옆에도 친구가 있으니 두 사람 모두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그 행복의 자리에 끼고 싶다.

● **뒷모습**

오래 전, 손 하나만으로 사람의 한평생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봤던 기억이 있다. 갓 태어난 아기의 꼭 쥐 주먹, 엄마 젖을 먹을 때 나머지 한쪽 젖에 가 있는 아기의 손, 앞으로 나란히를 한 어린이의 손, 친구나 연인과 꼭 잡은 손, 팔짱을 낀 신랑 신부의 손, 고무장갑 낀 손, 버스 손잡이를 쥐고 있는 핏줄 불거진 손, 아빠의 커다랗고 두툼한 손과 아이의 작은 손, 앙상하게 뼈만 남은 환자의 손, 검버섯 피고 마디 통그러진 노인의 손, 가슴 위에 암전혀 놓여진 마지막 손. 사람의 몸 일부가 보여주는 삶은 정직했다.

그런데 이제 <뒷모습>에 담긴 인생을 만난다. 첩판 앞에 서



서 문제를 푸는 여자아이에서부터 곰 인형을 업은 아이, 포옹하는 연인들의 뒷모습, 공원 벤치에 홀로 앉은 남자, 한 쌍의 대리석 동상과 그 앞을 걸어가는 똑같은 포즈의 한 쌍, 힘을 합쳐 배를 미는 남자들, 옆드려 기도하는 둥그런 등, 아이의 별거벗은 엉덩이, 말레리나의 뒷모습을 거쳐 파리의 에펠탑 뒷모습까지 보면 삶의 진실은 역시 보이는 앞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덕분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평소의 신념이 자신감의 웃을 입는다. 돌아서 가는 뒷모습에서 우리는 말과 표정 뒤에 감춰진 진심을 읽어내고, 모퉁이를 돌아가는 굽은 등에서 가릴 수 없는 쓸쓸함과 웅크린 슬픔을 본다. 앞서 가는 등은 나와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에 때로 깊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

뒷모습 사진에 붙인 미셸 투르니에의 글은 참으로 간결 명확하며 재미있다. 사진만 봐도, 글만 읽어도 좋은데 그 두 가지를 합쳐 놓았으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사진을 먼저 보고 글을 읽어보다가, 다시 글을 먼저 읽고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 맛 또한 새롭다. 앞모습을 상상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뒷모습은 뒷모습만으로도 가득 차 있다. 그 안에 생이 들어 있고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사진, 사람, 삶**

한 번 죽 보고 치워놓기에는 아까운 책들. 사는 게 구차하고 딱딱할 때, 분주하고 남루한 일상이 지겨울 때 나는 이 사진들 속에 풍덩 뛰어들어 한바탕 헤엄치며 돌아다니다가 나오곤 한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나온 시절과 지금 이 곳과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들이 고스란히 깨어나 내게 말을 걸어온다. 힘들어도 사람에게서 작은 위안 하나 구해 불빛 삼아 한번 살아보라고, 그 작은 불빛이 지친 너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는 것이 바로 삶의 진정성이라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담아 삶을 이야기하는 사진이 참 좋다. **유경은**

